

LG생활건강, 상반기 매출 4.4% 감소

2005년 1-6월 매출 5000억원 미달 ... 상반기 영업이익은 14.4% 증가

LG생활건강은 2005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총 40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.4% 증가했다고 7월21일 발표했다.

그러나 상반기 매출은 4966억원으로 4.4% 감소했다.

2/분기에도 매출은 2347억원, 영업이익은 145억원으로 매출은 4.9% 줄어든 반면, 영업이익은 18.9% 증가했다. 2/4분기 영업이익률도 26.5% 늘었다.

LG생활건강은 매출감소의 원인을 해외사업과 브랜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다.

영업이익 증가는 생활용품의 6대 주력제품군과 고가화장품에 집중함으로써 매출구성비가 2004년 상반기 대비 각각 9%, 35%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.

생활용품 부문은 도매물류사업 철수, 브랜드 정비, 주문자 부착방식(OEM) 수출중단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으나 주력제품군에 대한 집중전략으로 영업이익이 16% 증가했다.

화장품 부문은 브랜드 수를 줄이고 오희, 후 등 고가화장품에 집중함으로써 고가화장품 매출이 59% 증가했고, 방문판매 점유율도 크게 늘었다.

LG생활건강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2005년 영업이익 목표를 660억원에서 전년대비 38% 늘어난 75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22>